



김민석 국무총리, ‘젊은 한국 청년취업/멘토링 콘서트’ 방문

- 청년 참가자들, 멘토들의 경험이 담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열띤 호응
- 김민석 총리, “청년들과 더욱 긴밀히 공감소통하며, 해법을 정책에 담아 낼 것” 강조

□ 국무조정실은 5월 17일(일),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‘젊은 한국 청년취업/멘토링 콘서트’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

- 총 103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행사장을 방문한 청년들에게 일자리·주거·금융 등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, 정신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생생한 강연과 상담을 제공했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사장을 찾아 현장 참석자들과 청년들을 격려하고 정부 정책결정·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각 부처 청년보좌역, 2030 청년자문단, 청년인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.

▲ (보좌역)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각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6급 상당 (전문임기제 다급) 공무원(25개 장관급 부처를 대상으로 채용중, 현재 15개 부처 채용 완료)

▲ (자문단)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부처별로 구성·운영중 (19~39세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 / 단장: 청년보좌역)

□ 김 총리는 먼저 일선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각 부처·유관기관 부스와 자발적으로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준 민간기관의 부스를 방문해 사업 현황 등을 듣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.

- 김 총리는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스를 방문하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,

- LH공사 부스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유형 및 청약 방법 등을, 서민금융진흥원 부스에서는 다음 달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설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과정을 귀담아 들었다.
 - 또한, 청년재단 부스를 방문하여 중앙 청년지원센터로서 전국 244개 광역·기초 지자체 청년센터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
 - 특히 김 총리는 부스별로 진행된 1:1 멘토링에서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강구하고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아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.
- 이어서 김 총리는 각 부처 청년보좌역, 2030청년자문단, 청년인턴들과 함께 ‘청년과의 대화’ 시간을 가졌다.
- 참석한 6명의 청년 대표들은 취업 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, 세대 간 소통과 멘토링 기회 부족과 같은 아쉬운 점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생생히 전달하고,
 - 청년정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면서,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.
- 김 총리는 “사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, 주거 등 다양한 고민들을 한자리에서 듣고 멘토링하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올해 초 저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.”면서,
- “오늘 와서 둘러보니 이렇게 한자리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는 행사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, 정부도 더욱 노력하고 특히 청년 정책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려야겠다.”고 말했다.
- 한편, 이날 행사에서는 유명 멘토 8명의 주제별 강연에 더해 80여 개의 멘토링 부스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분야별 멘토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.
- 이날 멘토로 참석한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"알파고 이후 AI 기술이 단순한 바둑을 넘어 사회 전반의 흐름과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됐다."며 "AI가 빠르게 정답을 제시하는 시대가 됐지만,

결국 중요한 것은 **자신만의 생각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**"이라고 강조했다.

- 멘토로 참석한 선재 스님은 청년 참가자들을 향해 "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,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."고 당부했다.
- 현재 취업과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한 청년 참가자는 "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."며 "특히 1대1로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담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."고 소감을 전했다.

□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청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(총괄)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장	유호석	(044-200-6332)
	청년정책협력관실	담당자	사무관	안소영	(044-200-6335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문유진	(044-200-1981)
	청년정책협력관실	담당자	사무관	박아름	(044-200-1986)

